

#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 공관복음의 학문적 영성적 읽기를 통해서  
9월 12일 강의 계획서

## 카이사리아 필리피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마르 8,27-29)

### 들어가는 말

카이사리아 필리피 사건: 예수님의 공생활 삶에서 전환점을 형성한 사건

### A. 카이사리아 필리피에 오시기 전에 들렀던 장소들

#### 1.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방인 지역들을 돌아다니심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마르 7,24).

예수님께서 다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마르 7,31).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마르 8,27)

#### 2. 예수님은 왜 이방인 지역들을 돌아다니셨을까?

(1)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마르 7,24 이하)

(2) 제자들에게 사색할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 맞다.

### 3. 카이사리아 필리피 마을에 대해서

#### 4. 예수님이 던지신 두 개의 질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마르 8,27-29)

(1)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 두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 B. 베드로의 신앙고백(마르 8,27-30)

### 1. 예수님 정체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마르 8,29)

●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마르 8,30)

● 제자들과 군중이 갖고 있던 메시아(그리스도)관

## 2. 베드로를 향한 축복의 약속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 16,17-19)

(1) “시몬 바르요나”

(2) “살과 피”

(3)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로스(Πέτρος)

(4)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예수님이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음>

<이 말씀에 대한 교단들 사이의 다른 해석>

① 베드로의 수위권과 로마 교황권에 대한 교단의 차이

㉠ 가톨릭 입장

㉡ 개신교 입장

② 오상의 비오 신부님

(5) “저승의 세력”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6)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직역)

하늘나라의 열쇠들 = 교회의 문을 여는 열쇠들 + 교회통치 권한

(7) “매고 푸는 권한”

① 사도들 모두에게 주어진 권한

② 매고 푸는 권한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C. 예수님의 수난-부활 예고와 베드로의 반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만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마르 8,31-32)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꾸짖기 시작하였다.(마르 8,32)

1. 베드로의 격한 반발

- ‘꼭 붙잡고’ : 프로스람바노(προσλαμβάνω)
- ‘꾸짖다’: 에피티마오(ἐπιτιμάω)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둘러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하며 꾸짖으셨다.(마르 8,33)

1. 베드로의 반발은 사실 모든 제자들의 반발이었다.

2. 예수님의 예고에는 부활예고도 들어가 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만 한다는 것을....”

3. 예수님의 꾸지람

(1) 베드로를 사탄이라 부른 이유는?

(2) “내 뒤로 물러가라.”

4.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 D. 제자직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안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마르 8,34-36 직역)

0. 모두를 향한 제자직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1. 자신을 버리는 훈련

###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 ① ‘자신을 버리고’ = 자신을 부정하고(아파르네오마이, ἀπαρνέομαι)
- ② 참된 자아와 거짓 자아
  - ‘옛 인간’을 벗어 버리고 ‘새 인간’을 입는 자기 부정
- ③ 자신을 부정하는 훈련을 할 때 주의할 점

## 2. 십자가를 안고 가는 훈련

### “제 십자가를 안고 나를 따라야 한다”

- (1)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가, “안고” 가는 것인가?
- (2)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안고 가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 (3) 적색(赤色)순교 말고도 백색(白色)순교가 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

## 주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천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르 9,2-7)

### 1. 거룩한 변모 사건이 일어난 장소

- (1) 타보르 산인가? 헤르몬 산인가?
- (2) 현성용이 일어난 장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 2. 거룩한 변모 사건의 네 장면들

- (1)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됨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당신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그 옷이 하얗게 번쩍었다.”(루카 9,29; 마태 17,3)

- (2)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

①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기에

- 예수님은 성서(구약성서)를 완성하시는 분
- 예수님은 승천하실 분

②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오고간 대화 주제는?

엑소도스(ἔξοδος) = 엑스(ἐξ, '에서') + 호도스(ὁδος, '길')

※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란 용어 : 시노드스(synodus)

(3) 베드로의 엉뚱한 제안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마르 9,5-6)

(4)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마르 9,7)

- 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 ② 무슨 말을 들으라는 것인가?
- ③ 초막 세 개와 관련된 베드로의 세 가지 실수

### 3. 우리의 신앙 삶을 위한 적용

- (1) 높은 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 (2) 세상 한복판에서 이뤄지는 우리의 신앙생활